

2024. 2. 16.(금) 10:00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울산 북구 교육의 질,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박재완 의원)

울산 북구 교육의 질,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완 의원입니다.

작년에 저는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지역의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은 우리 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구는 여전히 교육시설 부족과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개발된
강동동, 송정동, 농소1동, 농소2동 지역의
일부 학생들은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시설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각 학년당 점심시간은 겨우 15분에 불과합니다.
졸업식에도 협소한 공간 때문에 학생 1인당
학부모 한 명씩만 참석하도록 권고할 정도입니다.

급기야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중산동 이화중학교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매곡·호계지역 100여명이 넘는 신입생들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이화중학교에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화중학교의 교통안전 대책과 지원은
주먹구구식으로 뒤늦게 논의되었습니다.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상태 의원님이
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동분서주하며 주민 의견을 모아
전달한 이후에야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정지구의 유일한 중학교인 고현중학교는
현재도 포화상태입니다.

고현초·화봉초·송정초 졸업생들은
내년에도 같은 학군이라는 이유로
가까운 고현중을 두고 실질적 거리가 매우 먼
화봉중·연암중에 배정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강동동에 있는 강동초·강동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용가능한 학생 수와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 수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업에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언제까지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지내야 합니까?

「교육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은 북구 어느 지역에서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며,

중산중·고교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학교 설립이 교육청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는
‘중산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청과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주민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변명일 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은 다수의 주민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송정지구 내 특수교육원 설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대전·충북 특수교육원을 벤치마킹하고
특수교육원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울산시교육청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송정지구 주민들을 설득해 ‘조건부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시 교육청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변경을 추진,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했다면 특수교육원 설립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은 구정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교육
문화도시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문제를
계속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학교는 더이상 지을 수 없다, 해결 방법이 없다는
울산시교육청의 말만 듣고 고통받는 북구 학생들과
학부모를 손 놓고 보기만 하실 겁니까?

이제 구청장님이 직접 구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리 북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북구의회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